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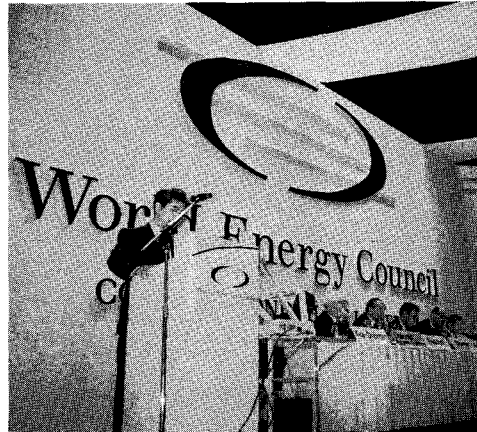
## '94년도 WEC 집행이사회(남아공/케이프타운) 年會費 산정방식 변경, 차기의장에 Baker(영국)선출

세계에너지회의(WEC)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94년도 집행이사회(Executive Assembly)가 지난 10월 11일, 12일 이틀간 남아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렸다.

이번 집행이사회에는 66개 회원국과 10개 국제기구로부터 약 240명이 참가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최동규 이사장(한국수자원공사), 문희성 이사장, 조경해 처장(한국전력공사), 장기옥 사장(한국전력기술), 박상건 부이사장(에너지관리공단), 안정오 부장(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김영철 사무국장, 이성룡 과장(에너지협의회)등 8명이 참가하였으며, 북한은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

WEC상임위원회(10.9~10), 집행이사회((10.11~12), 남아공화국에너지데이(10.11), 산업시찰 등의 주요행사가 있었으며, 의장인 Dr. G. Ott(독일)의 사회로 진행된 집행이사회에서는 ① WEC 주요사업 추진현황보고, ② '95년도 WEC 동경총회(1995. 10. 8~13)및 집행이사회 준비상황보고 ③ WEC 각 회원국 활동사항이 보고되었고, ④ 알바니아, 보츠와나, 몽고의 회원가입과 콜롬비아의 제명으로 WEC회원국수는 98개국에서 총 100개국으로 증가하였으며, ⑤ '96년도 WEC 집행이사회 개최지로 터키, 오스트리아, 리비아 3개국이 신청하였으나 표결결과 터키로 결정되었고, 2001년도 WEC 총회유치를 위해 아르헨티나, 호주, 스웨덴등 북유럽 5개국 공동이 개최신청을 하였으며 태국이 '97년도 집행이사회 개최유치를 신청하였다.

한편 이번 집행이사회에서는 ⑥ WEC 발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회원국의 年會費 산정방식이 변경되었는데 신규방식에 의한 WEC의 '95년 年會費수입은 금년보다 30% 이상 증가하게 된다. 한국의 年會費는 금년도 12,588파운드(약 1,600만원)에서 '95년도에는 13,720파운드(약 1,750만원)로 약 9% 증가하게



되었으며, ⑦ '93년도 WEC 본부 결산 감사결과, '94년도 수정예산, '95년도 예산안 등 재정문제에 대한 회원국의 승인이 있었다.

임원선임에 들어간 집행이사회는 ⑧ WEC 집행이사회 현의장인 Dr. G. Ott의 임기가 내년 10월에 만료되므로 차기(1995~98)의장에 영국의 Mr. J. Baker를 선출, ⑨ 부의장 3명중 Mr. D. M. Kroko의 임기만료로 브라질의 Mr. J. L. Alqueres를 지명하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었으며, ⑩ 3개 상임위원회 위원 8명을 새로이 선임하였다.

집행이사회 개회식에 참석한 남아공화국 Botha 광물에너지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태양의 마지막 팽창으로부터 지구가 살아남는다면 지구는 한덩어리의 푸석푸석한 석탄처럼 될 것이다. 그날까지 빛과 열을 즐기기 위해 버튼 한번도 누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최저값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모두의 지식과 기술을 종합해야할 책임이 있다. 전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주기위해 선진국이 GDP의 극히 일부라도 지원해줄 것”을 호소하면서 남아공화국 정부의 민주화 일정과 관련하여 상당히

철학적인 내용의 연설을 하였다.

'95년 동경총회와 관련하여 문희성 이사장은 동경총회조직위원회 Yokobori전무이사, Kaya위원장등 일본측 인사와 미국대표에게, 최동규 이사장은 WEC 사무총장등 집행부 임원들에게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을 동경총회 기조연설자로 선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일본측 관계자들은 추천인사가 경합이 되고 있으나 한국측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였다.

WEC 동경총회는 기조연설, 에너지강연, 논문발표, 토론발표(Round Table), 워킹그룹세션, 에너지산업전시회, 청소년에너지심포지엄, 산업현장방문(Technical Visits), 일본에너지세미나, 동반자프로그램 및 사회문화행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으며, 총회본회의 종료후 4~5일간 산업시찰(Post-Congress Tours)이 실시된다. 여기에는 한국의 고리원전, 포철, 현대중공업 전학과 서울, 부산, 경주를 관광하는 한국코스도 포함되어 있다.

동경총회에는 각국 에너지산업 관련 인사 약 6,0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본측의 치밀한 사전준비로 과거 어느 총회보다 더욱 알찬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東京에너지 심포지엄

### 文熙晟 이사장 참가

지난 11월 17, 18일 양일간 일본 동경에서 「WEC '95 Pre-Congress Symposium」이 WEC 동경총회조직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이 심포지엄은 일본 국내인사들에게 내년 10월에 개최될 WEC 제16차 총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준비되었으며, 한국 미국 호주등으로부터 약 10명의 저명인사가 패널리스트로 초청되었다.

한국에서는 文熙晟 한전 이사장이 토론자로 참가하여 「세계 에너지시장에서 일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 WEC 亞·太 에너지효율포럼 한국 6명 참석

WEC 지역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된 「WEC 亞·太 에너지효율포럼」이 지난 11월 7~9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亞·太지역 에너지산업 관련인사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亞·太지역 에너지효율포럼의 목적은 에너지효율·경제개발·환경문제의 연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域内の 에너지효율 추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상호교환하는 場을 마련하는데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종달, 지역난방 김병룡, 손창일, 석탄사업단 양익동, 에너지관리공단 오석범, 황인호씨 등이 참석하였으며, 김종달 박사는 토론세션 "Energy Efficiency in the Power Sector"의 패널리스트로 초청되어 발표를 하였다.

## WEC 東京총회조직위 담당자 한국방문

### 전시회 참가권유 및 산업시찰코스 답사차

WEC 동경총회조직위원회 T. Tsujiguchi씨의 1명의 전시회 담당자 및 C. Shibata씨의 2명의 산업시찰 담당자가 지난 10월, 11월 각각 한국을 방문하여 전시회 참가 권유 및 산업시찰 한국코스에 대한 사전답사를 하고 돌아갔다.

10월 24일 내한한 전시회 담당자 일행은 삼성중공업, 금성산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중공업, 한국전력기술, 에너지협의회 사무국등을 방문하여 내년 WEC 동경총회 본회의 기간중 병행 개최되는 「세계에너지전 동경 '95」전시회 참가안내 및 권유를 하였다.

11월 15일부터 4박 5일간 한국을 방문한 산업시찰 답사팀은 현대중공업, 포항중합제철, 고리원자력발전소 등을 방문하여 담당자들과 협의를 하였으며, 서울 부산 경주등 주요 관광지를 실사하고 돌아갔다.

한국코스는 우리가 요청하여 WEC 동경총회 산업시찰코스에 포함되었다.